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Jan. 2017
Vol.5 No.1

- 신년특별새벽집회
- 새해 소망·기도제목
- 교리학교
- 교육부 / 간증 / 화보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3개채플 1~2세 함께 "새해를 하나님께"



세계 채플 1000여명의 성도들이 벨리채플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 신년예배

2017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예배가 벨리채플에서 1월 1일(주일) 연합으로 드려졌다.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풍성함과 가득찬 채플을 바라보며 충만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예배였다. 신년예배에 앞서 치러졌던 EM 힐링캠프의 감동에 새해를 맞이한다는 새로움이 더해져 여느 신년예배와는 또다른 느낌의 신년예배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 몇 년 동안 1세대가 대다수인 장년층과 2세대를 포함 영어권으로 구분되는 중고등부 학생을 포함한 청년층과의 거리를 좁히려 애쓴 보람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는 것



간이었다.

전통예배형식으로 드려진 신년예배는 오르간소리에 맞춰 입례송은 알 수 없는 몽글함

이 보이는 신년예배였다. 이제 더 이상 세채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색함이 없어 보였고 EM, YOUTH를 포함 영유아부 어린이까지 함께 자리하여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

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했다. 주로 주중예배에 있는 성찬식이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예배 순서에 포함되어 자리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을 올릴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다. 2016년을 보내며 우리가 알고 혹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까지 회개하여 2017년은 눈처럼 흰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의 붉은 피를 통해 이루어 새해를 새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유진 전도사와 최엘림 학생의 첼로듀엣,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ICY의 한국어 합창, 8중창과 연합성가대의 훌륭한 합창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3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VISION STATEMENT

2017
NEW YEAR

도보
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신년
인터뷰

최혁 담임목사
2017년 계획

‘전심을 기울여 사랑으로 돌보는 한해’

◆ 기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017년은 주안예교회가 설립된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반동안 달려오면서 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목사: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안예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려움 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으며,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당회와 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와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커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이자 눈동자였고,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통해 가장 훈련 받은 것은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기자: 올해에는 70여명의 장로, 집사, 권사 등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분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최혁 목사: 지금 주안예교회 리더들은 이미 너무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강조하듯이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 기자: 주안예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부가 든든히 서 가야 하겠는데, 교육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혁 목사: 교육부 역시 2017년 표어인 ‘돌봄’이란 주제를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훈련을 기획중이고, 하반기에는 영혼사랑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국내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자: 올해부터는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목사님: 해외선교는 작년 6개월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올해 멕시코에 선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7시간을 더 가면 갈보리채플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를 빌려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길 계획도 있습니다.

선교센터는 우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해서 우물 전문가와 함께 2-3월 경에 멕시

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상반기에 선교팀이 그 땅을 직접 방문하여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진행과 센터설립은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기자: 교회내외적으로 올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목사: 주안에힐링캠프와 Advanced 힐링캠프에 집중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선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도 국내선교를 떠나 함께 섬길 것입니다.

◆ 기자: 끝으로, 2017년 주안예교회 표어가 ‘돌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목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의 말씀에서 "돌아보아"는 카타노우에(katanoevw)라는 원어로 카타[kata]와 노에우[noevw]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지각하다, 연구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전심을 기울여 몰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전심을 기울여 몰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혼자서는 성도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안예교회는 2017년, '전심을 기울여 몰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만나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돌봄이 있는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1면서 계속〉 또한 장진원 어린이의 영어와 한국어 성경봉독으로 생각지 못한 마음의 울림을 만들어 주었다.

사도행전 12장을 기반으로 최혁 목사는 “간절히 빌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는 기도에 힘쓰길 강권하였다. 신년을 맞이해 목사님의 말씀은 여느 때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모든 주안예교회 성도들의 힘있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해야할 많은 일들의 순위에서 신년예배를 1순위에 놓고 2시간 이상의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플러튼 성도들, 익숙지 않은 장년예배에 마음을 더한 영어권 학생들까지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예배였다. 또한, 신년예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길 바라는 마음은 삶이 버거울수록 더욱 간절해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2017년은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해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본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말씀을 앞세워 참된 ‘돌봄’을 실천하며 2017년을 달려보자 서로에게 다짐하였다.

2016년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주안예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2017년에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안에 우리를 도구삼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드리는 기쁨”



■ 교리학교

2017년 들어 첫번째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교리학교가 엘에이채플과 벨리채플 합동으로 지난 2017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벨리채플 본당에서 있었다.

지난 5년동안 이어진 가뭄을 끝내기 작정된 듯 올겨울 내내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날도 역시 아주 많은, 꼭 한국의 긴 여름장마같은 비가 내렸지만 160여명 가까운 리더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지난 2016년 내내 표현하지 못하고 강건치 못한 육신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듯 초조하기 조차 하셨다고 고백하셨던 최혁 담임목사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3박 4일동안 있었던 ICY, EM 힐링캠프를 통해 육신적인 건강을 찾았다고 간증했던 말씀을 증명하듯 뿜듯이 날아 같듯이 열정을 다해 교리학교를

진행하였다.

이번시간에는 신론에 대해 강론하셨는데 열정적인 진행은 중간 휴식없이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눈스탑으로 달렸다.

세상도 부인할 수 없게 명백한 “신”이라는 존재, 어찌보면 막연하고 손에 잡힐 것 같지 않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이 알 수 없는 자긍심으로 자리잡는 시간이었다.

탁월한 과학자나 의학자들도 연구와 질문들의 끝에서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들처럼 시간과 열정을 들여 연구하지 않아도 알게되고 마음에 품게 된 이 알 수 없는 이끌림, 이 이끌림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프라이드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신”을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

를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서 그분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게 되어 삶의 끝에서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담임목사님의 간절함을 통해 얻어지는 교리학교가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는 리더쉽의 기초가 된다는 것 역시 주안에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주위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오래간만에 혈기왕성하게 열정을 감추지 못하고 폭주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많은 기도제목이 있지만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다짐하게 됐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잠깐 접어야 했던 최혁 목사님의 특별하고 탁월한 열정, 그리고 간절함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학교를 포함해 정제되어 있는 모든 스케줄이 제자리를 찾길 기대하게 된 시간이었다.

| 채은영 기자 |

■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성경통독 ‘주안에말씀’으로 새해 출발

평신도사역원(이하 평사원)에서는 지난 12월 17일과 1월 14일 월례 정기모임을 통해 2017년도 평사원 훈련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원장 구승환 피택장로님께서 있었던 연말 모임에서는 2016년도에 있었던 여러 훈련에 대해 뒤돌아 보고, 또 2017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할것을 결의 하였고, 특히 평사원 팀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정미 피택권사의 빈틈없는 준비와 모든 스태프들의 수고로, 2017년도에도 평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특히 2017년도에는 평사원 훈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과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중요성



주안에말씀 접수를 돕고 있는 평사원 스태프

을 인식시키기로 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최혁 담임목사는 평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고, 각 훈련 과정별 담당자는 물론 서로서로가 협력하여 모든 훈련

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부탁했다.

이제 2월 1일 주안에 말씀을 시작으로 주안에 삶, 주안에 빛, 주안에 일꾼 등 2017년도 평사원 훈련이 시작되는데, 각 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2017년도에는 특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훈련을 열심을 내어 참여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준비되고 순종하는 모든 주안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말씀과 기도로 영적전쟁을 승리케 하소서”



■ 신년특별새벽집회

지난 1월 2일 부터 3개 채플에서 동시에 2주 동안 진행된 2017년도 신년특별새벽집회는 일 년에 대해 주님과 의논하며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의 지표를 삼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밸리, 플러튼, LA채플에서는 2주동안 하루 평균 260명 정도의 교인들이 참가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ICY종교등부와 EM 대학청년부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가져 EM 힐링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이어갔습니다.

이하는 신년특별새벽집회 2주간 최혁 목사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 (삼상10:17-27)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제비뽑기를 허락하신다.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배나민 지파가 택해지고 마드리 가문의 기스가 죽인 사울이 뽑히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확인된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전쟁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새 뜻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과정보다 신뢰하라. 삼상 9:16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됨을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한다.

“새 일의 과정에서” (삼상10:26-27)

첫째, 하나님이 행하기로 뜻하신 새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난다. 본문 27절에서 “어떤 비류”는 ‘사악한’이란 뜻으로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반대세력으로 배후로서의 사단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에게 계시되었고,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둘째, “그는 잠잠하였다”에서 잠잠하다는 귀머거리, 안들리는 의미를 가진다. 새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격동되는 말을 들었을 때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에 격동되지 않도록 영적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 영적전쟁을 통해 선택해야 할 말과 버릴 말을 분별해야 한다.

“영적전투(1)” (삼상11:1-5)

일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은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배후에서 사단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검과 기도로 묶고 결박함으로 영적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첫째, 사단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마귀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암몬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둘째, 사단은 잠시 후퇴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 후 기도가 중단되고 욕심이 생기며 진리가 총만하지 않을 때 연약한 틈으로 사단은 들어온다. 그러한 마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 사 10장의 암몬의 기르앗 야베스의 계속된 침략은 지형적인 약점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공동체의 중심이 아닌 무리로 떨어져 있는 진의 끝을 공격한다.

“영적 전투(2)” (삼상 11:5-6)

사울이 영적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첫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에 집중한다. 사울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고 밭을 갈고 있었지만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왕으로서 사명에 집중한다. 둘째는 “영에 감동될 때” 여호와와 신을 구해야 한다.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총만이 필요하다. 사 6:34에서 밀타작하는 보잘 것 없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와 신이 급하게 들어오매 기드온의 손에서 족속들이 컨트롤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기드온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삼상 11:6에서 “노가 일어나”에서 곧 분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어지며, 땅이 우상에 가득차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실 때 성령의 탄식으로 분노한다. 늘 여호와와 신에 총만되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위에 올려진 우리의 손으로 문제가 다루어지는 능력을 얻게 된다. | 나형철 기자 |

■ 3개채플서 정기공동의회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예산승인을 위한 정기 공동의회가 지난 1월 18일(플러튼채플), 19일(LA채플), 20일(밸리채플)에서 각각 열렸다.

조용대 장로의 전년도 회의록 낭독에 이어 감사위원장이신 이해구 장로의 감사보고, 그

리고 이방걸 장로의 2016년도 결산보고가 있었다. 특히 2016년도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안교회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다.

김경일 장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2016년도 예산과 같은 예산을 세우고 더

욱이 멕시코선교센터 건립비용까지 추가하여 2017년도에는 선교의 열정을 더 불태우는데 모든 성도님들은 동의, 재청하였다.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예산, 결산표를 보면서 2017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합심기도하였다.



“믿음의 가정, 성령충만한 우리 자녀들



정세화 장로(플러튼)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눈병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병인 허리 통증이 없어지고 눈 수술의 후유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가까운 곳으로 옮겨와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소원은 가족 모두가 주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수경 집사(LA) 2017년에는 우리가족 모두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제의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Paul Yang(EM Logos Valley) For God to give me a vision that I can follow, and to learn to love others better. To serve God is the priority in my life, so doing what He wants me to do is best. And loving others is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Jesus gave, and I want to follow that commandment in every way possible.



송대봉 성도(LA 한어청년부) 신앙과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주위 친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안정호 피택 안수집사(플러튼) 지금까지 건강으로, 또 물질적인 궁핍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투병 중에 계신 어머니의 완치와 지병인 기침으로 고생하는 아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며, 맡겨주신 봉사부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현연 집사(LA)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장의 일들과 또 자녀들의 진로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명희 집사(플러튼) 2년 전에 저를 주안예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마하나임 성가대의 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 가족이 가까운 곳으로 옮겨와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주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현미 집사(밸리)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Jason Gaeta(EM Logos Fullerton) There has never been a year where I felt more challenged by God/Life to point my own flaws out and become more than them, but also have I never been so unprepared for the struggles that hit. For the New Year, I pray that I can prepare and win the spiritual battles by allowing God to take center in all of the areas in my life.



오혜수 집사(밸리) 남편 오근수 집사가 아무일 없이 믿음생활 전진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확신, 딸 해나와 저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김지혜B(플러튼 한어청년부) 1.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성태 피택안수집사(밸리) 그동안 힘들었던 눈의 회복이 있길 소망하며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한해가 되길 기도하며 주안에 교회,가정과 회사 모두 하나님 사랑안에 거하는 2017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꼬옥이요.



박한신 집사(밸리) 저희는 이번 한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은 가장으로서 제가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강진영 집사(밸리) 저희 가정이 하나님 보호하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정희C 권사(플러튼) 올해 더욱 간절히 마음은 내 남은 인생 여정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한 여선지자 언약처럼 늘 건강하셔서 기도하며 주님 만날 준비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준영(LA 한어청년부) 겸손함과 이타심이 가득하길, 하는일과 신앙심에 열정과 동기부여가 잘 되어서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주소서”



송단아 권사(플러튼) 을 한해 나 자신에게 마음 빠앗기지 않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크리스티나김 집사(LA) 새해소망은 제게 맡겨진 일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잘 감당하기를. 또한 저의 하는 일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저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시연 성도(플러튼 한어청년부) 1. 아직 믿지 않는 외가 식구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Katie Park (ICY LA) My dad has not come to know Christ yet and even though I know that God has everything in plan, I cannot help but want the Holy Spirit to really penetrate my dad's heart and take over his life. As for myself, I sincerely want to show what His boundless love is like to others, especially my dad, so that they can come to know who their Heavenly Father is.



황화진 집사(밸리) 1.을 한해도 주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가족 모두가 승리하도록. 2.주안 에교회 선교부가 잘 셋업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도록. 3.지금도 너무나 많은 열방에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에 중보자들이 일어나도록. 4. 한달동안 북아프리카로 떠나는 걸 음위에 주님이 동행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아)



임용자 권사(밸리) 새해 소망은 월요 기도모임이 응답 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기도제목은 브니엘이 최고의 서비스를 하여 주안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행복하고 복된 교회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 브니엘 크루들은 감사하고 행복 하겠습니다.



조혜리(밸리 한어청년부) 2017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영일 집사(플러튼) 을 2017년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음은 그전 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희망과 노력의 연속선 위에 있음일 것입니다. 올 2017년이 지난해 보다 게을러 지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를 통해 완성이 되며 그 완성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이 지남이 결코 쇠락해 간다는 의미를 품지 않게 하시고 저의 뒤를 따를 자들의 길에 조금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건강함을 지키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해도 꿈과 희망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정현 성도(LA 한어청년부) 쉬지않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하며 매순간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Julie Ahn(ICY Fullerton) I wish that I am not lazy when it comes to serving God. From this point on, I want to fully trust the path that God has paved for me.



이성훈 집사(밸리) 1.아버지, 큰형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2.저희 부부가 매일 OT를 통해 항상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3.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4. 신안인으로써 더 적극적인 삶



이지현A 집사(밸리)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저희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힘을 더 빼서 저희가 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달리시도록 더 의지하고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백혜재 성도(밸리 한어청년부) 필름 및 애니메이션 선 좋은 퀄리티로 끝내는 것과 꼭 가고 싶었던 애니메이션 회사에 입사하길 기도합니다.



Kaylee Kim (ICY Valley) My prayer request is for God to work through me and lead me in ways he wants to take me and in ways he wants to use me.

신년예배 사진: 안동운 국장, 남성우 집사, 양영 집사, 조원용 집사

■ CD사역국(벨리채플)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기쁨 가득

CD사역국장직을 임명받고 황영욱권사는 걱정과 기쁨의 마음이 동시에 다가왔으며 말문을 열었다. 타교회와 확연히 다른 작업량과 설교를 통해 전도의 최전방에 나선다는 무게감으로 인해 과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 저러한 도우미 역할을 했었지만 전체적인 조율과 매끄러운 관리를 하는 것에 선뜻 자신감이 충만하진 않다고 한다. 반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CD사역을 통해 이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한다. 올해 목회부에서 CD를 통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한 위로와 격려로 진리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역인것"을 강조하였기에 이에 동참하여 기쁨을 맛보기로 작심하였다 한다. 특별히 CD사역국은 참여



하는 것이 여타 사역국보다 광범위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새벽예배 후에 진행되는 CD작업 및 자켓작업도 사역국 팀원이 누구인지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 있으며 배포 역시 지역과 장소를 지정해 일주일에 몇번이 아닌 담당장소의 CD가 비는대로 채워 넣는 열심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CD 한장을 수줍게 전달하는 소극적인 활동으로 부터 시작하여 본인의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강권하기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았다. 무심히 또 설교CD 하나 받았구나 했다가 마음을 찢는 탁월한 설교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럽게 내민 손이 무색하게 거절당했을 때의 민망함 정도는 백번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경험담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을 향해 뭐라고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들고 불신자들이나 신앙과 멀어져버린 성도들을 회심시킬지 막막할 때 CD라는 좋은 무기를 들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안예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바라옵기는 2017년도에 CD 한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CD사역국은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모집분야: 배부 및 배부처 관리 CD자켓 작업/ 사역시간: 토요일새벽예배 후 CD작업 및 주 1회 배부 및 관리/ 문의: 황영욱 권사 | 채은영 기자 |

■ 선교국(LA채플)

"멕시코 선교센터 기도와 동참을"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7년 주안예교회는 선교의 사명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가 같은 언어나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다른 언어나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대하면서도, 선교사의 마음을 구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해져버린 인간관계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안타까움의 가슴앓이만 커져가는 이때에, 말씀을 통한 공부와 교육으로 훈련되고 있는 주안예교회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끝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진리를 바탕으로, 선교의 참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L.A. Chapel의 선교국은 국장님이신 윤종화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선교국 팀원이 되어서, 작게는 주변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좀 더 나아가서는 몇번의 멕시코 단기선교의 경험



에 비추어, 멕시코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선교센터를 건립하려는 교회의 계획을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종화 국장님께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에 주안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서 돌봄과 섬김을 소외된 이웃에게 실천하는 한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양적인 부흥보다는 영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 달려온 주안예교회는 이제 선교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그보다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국의 역할은 복음전과는 물론이고 구제와 나눔, 헌신과 섬김 등 우리의 믿음생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 Chapel의 주변에는 이러한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교국과 함께 우리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순종과 겸손의 양분만 스며들길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전 9:16)

| 오희경 기자 |



“찬양·예배봉사·교사 사역 감당 교회의 기둥”

■ 코람데오 한어청년부(LA채플)

주안에교회에는 “코람데오”라 이름하는 청년부 그룹이 있습니다. 한어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들로 40명-45명 정도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L.A. Chapel의 경우는 찬양팀(보컬과 악기)과 예배봉사(자막과 미디어)등으로 예배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며, 초등부나 중고등부의 교사로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없어서는 안될 만큼 큰 참여를 하고 있는 열정적인 그룹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면 어김없이 만남을 이어나가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도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모임 “코람데오”가 있어서 주안에교회의 미래는 든든하기만 합니다.

또한 새로 등록한 친구들의 서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새가족부에서는 매주 단 한명의 새가족 일지라도 새가족 환영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년에 한차례의 수련회와 한차례



의 캠프를 마련하여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Thanks giving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유학생과 여러가지 이유로 외로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줌과 동시에, 믿음이 없는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밥상을 부탁해”라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생

각만해도 그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젖어움을 느낍니다.

젊은날의 에너지를, 공부와 일 그리고 신앙생활에 쏟아부으려 부족한 시간일 망정 더욱 잘게 쪼개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 코람데오 청년부'를 힘차게 응원하며, 뜻있는 청년들께서도 그들의 밥상을 함께 거들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화이팅!!!

| 오희경 기자 |

“다음세대에 말씀과 믿음 전수 뜨거운 사명감”

■ 교육부 모임(플러튼채플)

플러튼채플 교육부 모임이 지난 12월 30일(금) 오후 6시 플러튼채플 친교실에서 열렸습니다.

국장인 박은래 장로님과 박상숙 권사님께서 2016년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2017년에 새로 교육부의 사역을 맡아 수고하실 임원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격려의 말씀은 박현동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권문상 집사님과 김수현 집사님은 지난 한해 교육부에서 봉사하면서 나누어준 것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새롭게 2017년 임직된 김옥희 권사님(교육1국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조영일 집사님(유치부장)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5백명이 되



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그에 맞춘 주일학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진선 집사님(ICY부장)은 기도와 음식으로 봉사할 것을, 김수현 집사님(EM부장)은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교육부 전도사인 이규화 전도사는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든든하다며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임의 꽃은 무엇보다도 음식이었습니다. 병약하신 몸으로 교회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박 장로님과 권사님 내외분이신 것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번 모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 날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래 장로님께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

움으로 어려운 환경의 교육부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2세 양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김경일 장로님은 주일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봉사자들의 헌신과 각오를 볼 때, 주안에교회의 내일은 너무도 밝고 희망이 넘칩니다.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그들을 통해 맺어질 거룩한 열매,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받고 자라날 미래의 주역들을 통해 이루어질 지역과 미국의 전도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조성운 기자 |

■ 칼럼

3년 전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 남 다르게 눈에 띄었다. 그 부부 중 남편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부부이다. 언제나 조용하고, 부인의 동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6대초반 쯤의 부부로 보였다.

2016년 어느 날 나의 가까이에 있었던 부인이 새벽예배가 끝나고 아침을 사겠다고 해서 함께 나섰다. 구석 자리를 좋아하는 나를 조용한 자리로 안내 하고 돌아보며 분위기 좋다고 한다.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나는 함께 먹고 떠들다가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유난 맞게 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서 상처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그래 맞아요, 상처야. 권사님." 하면서 동의 하더니 자기 시어머니로 인한 남편의 상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맛있는 아침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아들을 일등 시키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해야 하는 어머니였다. 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정직하고 조용 하시고, 엄마는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은 강한 여자였다. 엄마는 아빠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빠를 버리고 사업을 이루어 가며 더 강한 여자가 되었고, 재혼하여 또 다른 형제들을 낳았다. 아들은 그 때 받은 상처로 타인과 교제가 잘 되지 않는,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되었다. 자기 엄마



이에스더 권사 (플러튼)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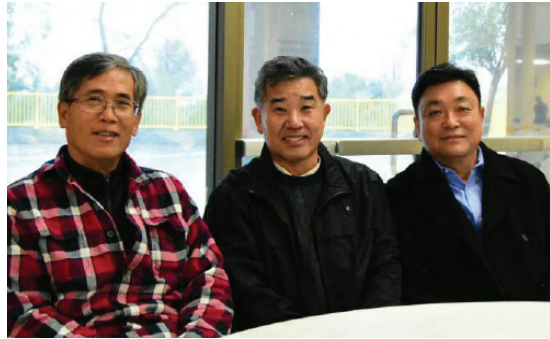
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을 찾아 결혼한 이 분은 밝고, 희생적인 아내가 좋았다. 정말 애처가가 되어서 남매를 낳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재가한 엄마가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을 낳고 한국에서 힘들게 살면서 살기 어렵다고 편지를 보낸 것을 읽고, 남편은 싫다고 했지만 아내 된 권사가 우겨서 미국으로 모셔 왔고, 강한 성격의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혜롭게 살아 왔단다. 형이니 동생들 가르쳐야 했고, 우리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부부는 시동생이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야 집도 장만하고 자기들의 삶을 즐기게 되었다. 그 때부터 어머니와 동석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남편. 자기 주장이 강한 시어머니는 다른 자식들 속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 혼자 독립하여 노인 아파트에서 사신다. 자기는 고급 차 아니면 안탈 테니 사 내놓으라고 노를 발하셔서 결국 사드렸고, 노인 아파트에서 그 차를 타신다고 한다.

엄마가 해다 준 반찬은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는 남편. 며느리가 남편의 상처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 듣지 못하는 시어머니, 자리를 마련하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내는 시어머니, 사람 교제를 기피하는 남편,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큰아들의 아픔도 모르는 어머니... 내 아들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한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난 늘 침묵하고 한쪽에 앉아 있는 그 남편이 떠오르며 그 놀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흐른다. "권사님. 그래도 감사하자. 남매 잘 키우고, 사업 번창해서 장남 노릇하며 땀땀하니 감사하잖아." "네, 맞아요..."

아! 어쩌나 이런 아픔을 주어서... 욕심이 되어가는 아들 마음 속에 면도칼로 그어 놓은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데 그 어머니는 그것도 모른다. 아들이 왜 눈도 안 맞추는지... 아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나도 내 아들에게 물어 보아야겠다. "아들이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있니? 혹 있다면, 엄마가 죽기 전에 사과 할 수 있게 솔직히 말해 다오"

■ 안수집사회(밸리)



왼쪽부터 노해철 서기, 김경배 회장, 이성근 총무

2017년도 밸리채플 안수집사회는 지난 1월 8일, 19명이 참석하여 첫모임을 가졌고, 이어 1월 15일 두번째 모임에서는 성가대와 차량봉사로 불참한 5명 외에 모두 12명이 참석하여 회장에 김경배 집사, 총무에 이성근 집사 그리고 서기에 노해철집사를 각각 뽑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실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도에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예배참석을 돕기 위해 차량

차량·주차 자원봉사 섬김·교제의 기쁨도

봉사를 해주실 열명의 안수집사들이 자원해 주신것에 대해 임원진들 모두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안수집사회의 활동목표는 "봉사"로 정하고, 즉시 차량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진복집사와 이광조집사는 거의 불박이로,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의 집사님들도 자원하여 헌신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올 7월달에 새로 안수받는 신임 집사들이 합류하게 되면, 식당테이블 set-up과 주차봉사 등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헌신을 함으로 밸리채플 안수집사회의 존재감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또한 자주 만나서 교제하여야 하겠지만, 올해는 4번의 정기모임 외에 필요시 임시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최대한 많은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임시 친목가운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가까운 산행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곳으로 1박2일 Camping 을, 몇분의 시무장로님을 초청하여 같이 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림교구의 권사님들 여행시 같이 동행하여 섬기고 1년에 한번쯤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운영방향과 목회비전을 듣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 안수집사회의 집사님들이 교우님들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는 저희 밸리채플 안수집사들이 올 한 해 고개를 많이 숙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분들께 당연히 악수를 청하며 먼저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밸리채플 안수집사회가 많은 목표를 세우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만큼,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김경배 회장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고 달리는 밸리채플 안수집사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안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서 갈 것임을 확신하고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 이광영 기자 |

진리에 눈을 뜬 참 크리스천의 길

내 모습을 비춰 준 말씀에 눈물이...



오윤선 피택권사 (밸리)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설교시간에 수없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을 점검하며 정리해서 되새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어 내려갔던 나에게, 호흡을 멈추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째로 갈아엎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시간을 잘 지켜왔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했고, 정성껏 헌금을 바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에게 이런 행위들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지켜야할 규정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새로운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난 어떻게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읽었던 이 책에서의 요점은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있는 나의 내면세계에 신적인 변화 즉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 예수님께 속한 진리와 사랑, 열정과 권능, 목적에 눈을 뜬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다니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난 여기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안주하여 크리스천의 삶을 흉내 내는 유사품의 삶을 사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아비드라는 젊은 의학도는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전하여 크리스천이 된 첫 해에만 4천명에 이르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주셨다는 예화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인지하고 복음은 “그래야 하나까”가 아니고 “하고 싶어서”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만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이 초자연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도적인 태도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사품이 아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영적세계를 무장해야하는, 노력과 열정 없이는 세상이 주는 유희와 안락함에 빠져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제 자신 돌아보고 점검해봅니다.



김희정A 피택권사 (플러튼)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를 비춰보며 말로는 알면서 내 안에 깊은 내면까지 다가가지 못한 회개가 자꾸 시간이 지나며, 책을 읽어가는데 회개의 연속이었다. 나중에는 눈물이 계속 나오면서 그 오랜시간 잊혀져버릴 정도로 굳어진 내 심령이 조금씩 깨어짐이 눈물로 나오는 것 같았다. 나에게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도 언제부터 차갑게 식어져 있는 내 모습이 바로 그 책에서 나오는 크리스천으로 착각하며 사는 그들이 나왔다.

젊은 시절 처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을 때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는 무니만 크리스천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내 가족, 내 주위의 안위와 영혼구원을 기도해도 사랑이 빠진, 습관적인 기도를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해왔는지... 사랑없는 그리스도인이라니...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의 예수님... 조금만 희생이 있을 때마다 커다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양의 흉내를 내온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 자꾸 눈물만 난다. 기쁨도, 주님의 사랑도 모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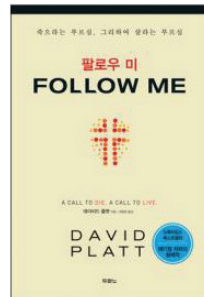
출장 가있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책 속에 나온 입양아보다 더한 나를) 죄인을 친히 찾아와 우리를 입양(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미리 주님을 찾아내서 주님을 만난 것 마냥 살아왔던 내 인생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며, "내게 오너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내게서 기쁨을 얻고 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라" 고 다시 알게 해주신 주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증인되길 원하시는 주님을 이 부족한 죄인이 감히 입술로 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내 정성 다 바쳐~~!!

■ 임직예정자훈련 독후감



February ♥ MINISTRY CALENDAR

<p>2/1(수), 2/2(목) 주안에말씀 개강</p> <p>2/4(토) 임직예정자 훈련</p> <p>2/5(주일) 주안에만남(LA채플)</p> <p>2/12(주일) 교리학교(밸리/LA) 장소: 밸리채플 구역모임(플러튼채플)</p>	<p>2/18(토) 임직예정자 훈련</p> <p>2/19(주일) 교리학교(플러튼)/ 구역모임(LA/밸리채플)</p>
---	--

GOD
LOVES
YOU

FIND
YOUR
IDENTITY
IN
CHRIST

LA채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설교마다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려"

주안예교회 LA채플에 등록한지 이제 4개월 남짓된 새내기성도 정승범집사입니다.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최혁 목사님 설교CD와 youtube 동영상 등을 통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LA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고 계셔서 엄두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해 4월부터 LA에도 채플이 생겼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방문한 그주에 교인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신 많은 자매님들의 마스크라가 번져 팬더감을 만드신 최혁목사님의 놀라우신 설교로 매주일 은혜 많이 받고 있지만, LA채플의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섬김에 또한 은혜받고 도전받습니다.

매주 모든 테이블의 성도들께 직접 차를 서브하시는 장로님들, 이곳 주안에 교회 아니면 보기 힘든 광경 같습니다.

이곳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도 더욱더 성숙하고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승범 집사

"드디어 우리가 다닐 교회를 찾았어"



김현 집사

제가 주안예교회에서 예배를 드린지가 4개월이 지났네요. 올해로 15년째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최혁 목사님 설교를 CD로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에 굽주리고 있었고, 이 교회저 교회를 방문하면서 실망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CD를 다 듣고 나서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우리가 다닐 교회를 찾았다고 얘기 하면서 너무 기뻐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론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오게됐고, 친한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까지 같은 공동체에서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 들으며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나누며 기대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주안예교회를 섬길 수 있게 제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에그롤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 어느 상차림에도 어울리며 다른 보조 요리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특별히 야채를 듬뿍넣어 만든 에그롤은 추운 겨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요리 중 하나다. / 박창신 기자 / Recipe 제공: 한금란 집사

Egg Rolls



재료(6-7인분)

쌀로 만든 춘권피 1봉지(25장), 양배추 ½ 개, 숙주 1봉지, 샐러리 4줄기, 양파 ½ 개, 닭가슴살 3 조각(1/2 파운드), 소금, 후추가루 약간씩 기호대로

조리법

1. 닭 가슴살을 팬이나 오븐에 익혀 잘게 찢어 놓는다.

2. 샐러리와 양파는 잘게 다지고 양배추는 잘게 채 썰어 놓는다.
3. 숙주는 씻어 물기를 뺀다.
4. 준비된 1, 2를 함께 섞어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한다.
5. 위의 5(소)를 일자로 펼쳐서 꼭꼭 말아준다. 대각선 모양으로 말아 양쪽의 귀를 틈새 없이 잘 말아

- 주어야 튀길때 옆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다.
 6. 야채 식용유로 화씨 350도에서 노릇노릇해 질 때까지 튀겨낸다.
 7. 각자의 취향에 따라 소스를 곁들여서 상에 올리면 훌륭한 요리가 된다.
- *샐러드를 곁들여도 좋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밸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성(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